

“지금 흘린 땀이 선발 결정”... KIA 캠프, 전쟁 시작됐다

오키나와 1군, 오늘부터 연습경기
대만 2군, 본격 체력·기술 훈련
합평선 잔류조+부상자 구슬땀
선수들 캠프 이동하며 단점 보완

‘호랑이 군단’의 진짜 경쟁이 시작됐다. 대만으로 건너간 KIA 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이 10일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오키나와에서 담금질을 하고 있는 1군 캠프단은 11일 실전 체제에 돌입한다. 대만 도류시 도류 구장에 캠프를 차린 퓨처스 캠프단은 박홍식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0명, 재활군에서 벗어난 외야수 이명기를 포함한 선수 29명 등 총 39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오는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퓨처스 캠프는 초반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으로 전개된다. 20일부터는 라미고 몽키스와의 대결을 시작으로 연습경기 일정이 시작된다. 퓨처스 캠프단은 통이 라이온스 등 대만팀과 KT 위즈, NC 다이노스 등 한국 팀과 총 10차례 연습 경기를 갖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1군 선수들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의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 지난 31일 오키나와로 건너가 워밍업을 해왔던 1군 캠프단은 11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자리 경쟁에 나선다. 캠프 시작과 함께 김기태 감독은 ‘이름값을 댄 실력’을 강조하며 올 시즌 무한 경쟁을 예고했다.

1군 캠프단은 오는 3월 7일 LG 트윈스전까지 13차례 연습경기를 하고 2019시즌의 큰 틀을 완성하게 된다. 1군 캠프단의 연습경기 일정 시작과 퓨처스 캠프단의 본격적인 훈련 전개로 선수들의 경쟁은 본격화됐다.

대만 캠프 연습 경기가 시작되는 2월 중순에는 캠프 선수단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오키나와 연습경기 결과에 따라서 대만 캠프로 건너가 세밀함을 더하게 되는 선수가 나올 전망이다. 반대로 대만에서 오키나와로 건너가 ‘어필 무대’를 갖게 될 선수들도 등장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시즌 준비가 이뤄진다. 잔류조와 함께 오키나와에서 조기 귀국한 김세현과 윤석민 그리고 부상으로 캠프 출발이 불발된 임기준, 박준표 등이 합평 헬린저스 필드에서 2019시즌을 준비하게 된다.

◇2019 타이완 스프링캠프 명단

▲코칭스태프(10명) : 박홍식 감독 류택현 박정현 김선진 정성훈 김창희 박기남 김지훈 장태수 방석호 ▲투수(13명) : 강이준 김승범 박경태 박정수 백미카엘 서덕원 유근상 이원빈 전상현 차명진 양승철(신인) 이호현(신인) 나용기(신인) ▲포수(2명) : 박정우, 한승택 ▲내야수(9명) : 김석환 김주형 문장은 박찬호 서동욱 윤해진 황윤호 오선우(신인) 김창용(신인) ▲외야수(5명) : 이명기 유재신 이인행 전은석 김민수(신인)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 선수단이 11일부터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 1. 훈련 시작에 앞서 어깨를 주무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새 외국인 트리오’ 제레미 해즐베이커(왼쪽부터), 조 윌랜드, 제이콥 터너. 2. 러닝 후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류승현. 3. 러닝을 하는 김선빈과 최형우. 4. 선전을 다짐한 ‘아기 호랑이’ 장지수, 홍원빈, 김기훈. <KIA 타이거즈 인스타그램>

시즌 시작도 안했는데 ... 마운드 ‘부상의 습격’

박준표·임기준 캠프 참여 불발... 김세현·윤석민 조기 귀국

‘부상의 역습’에 KIA 타이거즈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다. KIA는 지난 1일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2019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마운드에 ‘4, 5선발 완성’과 ‘필승조 구축’이라는 중대한 숙제가 주어졌지만 시작부터 부상이 덮쳤다. 전천후 선수로 선발과 필승조에 모두 이름을 올려두었던 박준표가 위 용종 제거술을 받느라 전력

후 첫 스프링캠프 참가가 불발됐고, 지난 시즌 좌완 필승조로 우측 선 임기준도 어깨 통증으로 막판에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다. 두 퍼즐 조각을 빼고 오키나와로 건너간 KIA는 또 다른 부상과 마주했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을 안고 있는 김세현이 몸상태에서 불합격을 받으면서 훈련 첫 타미 끝나기도 전에 조기 귀국했고, 지난 1월 일찍 오키나와로 건너가 2019시즌을 위해 칼을 갈았던 윤석민도 어깨

통증으로 11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캠프 시작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이 부상에 휘청거리면서 KIA 마운드 구상도 복잡해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부상’은 KIA 마운드의 키워드가 됐다. 여기에 지난 시즌 많은 부담을 떠안았던 필승조 김윤동도 특별 관리 대상이고, 선발 경쟁 중인 한승현도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11일부터 연습경기 일정이 전개되는 만큼 ‘부상

긴장감’은 더 높아졌다. 실전과 함께 경쟁이 본격화되면 선수들의 오버 페이스도 우려된다. 특히 캠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형 루키’ 김기훈 등 어린 선수들의 부상 관리가 중요하다. 다행히 임기준의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임기준은 하프 피칭을 앞에 두고 있을 만큼 차근차근 시즌 준비를 해가고 있다. 마운드 ‘만행’ 윤석민과 김세현이 이탈하면서 ‘에이스’ 양현종이 오키나와 캠프의 마운드 최고참이 됐다. ‘젊은 마운드’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KIA가 위기를 기회로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대현·김건우 쇼트트랙 ‘금빛 합창’

월드컵 6차대회 각각 500m·1500m 금...女 김지유 1500m 은

황대현(한국체대)과 김건우(한국체대)가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에서 ‘금빛 합창’에 성공했다. 황대현은 10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대회 남자부 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41초128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앞서 월드컵 5차 대회 5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황대현은 일주일 만에 나온 6차 대회 500m 1차 레이스에서 ‘금빛 질주’를 펼치며 상승세를 과시했다. 황대현이 월드컵 시리즈 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결승에 진출한 황대현은 스타트와 함께 선두를 잡은 뒤 헝가리의 산도르 류샤오린(41초 225)과 막판까지 접전을 펼친 끝에 0.097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 1,500m 결승에서는 우리나라의 김건우와 홍경환(한국체대)이 나란히 금, 은메달을 휩쓸

었다. 후미에서 체력을 비축한 김건우는 7바퀴를 남기고 선두권으로 진입한 뒤 1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선두로 치고 오르면서 2분 12초 82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완성했다. 지난 주말 월드컵 5차 대회 1,500m에서도 ‘금빛 질주’를 펼쳤던 김건우는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의 대업을 완수했다. 더불어 3차 대회 1,500m 은메달까지 합치면 대회 자체가 취소된 4차 대회를 제외하고 3개 대회 연속 메달의 상승세다. 함께 결승에 나선 홍경환은 2분 13초 227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자부 1,500m 결승에 나선 김지유는 네덜란드의 강호 수잔 슐팅(2분 24초 991)과 레이스 막판까지 1위 자리를 놓고 혼전을 펼친 끝에 0.071초 뒤진 2분 25초 062의 기록을 내며 2위로 결승선을 지났다. /연합뉴스



이강인 “언젠가 한국 축구에 도움 주고 싶어”

발렌시아 구단, 인터뷰 SNS 공개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18·발렌시아·사진)이 소속팀을 물론 한국 축구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강인은 지난 9일 발렌시아 구단의 페이스북 한국어 계정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더 좋은 축구를 배워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서 발렌시아에 왔다”라며 “2011년 발렌시아에 올 때부터 1군 선수가 되고 싶었고,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강인은 지난달 31일 발렌시아의 1군 선수로 등록됐고, 등번호 16번을 달았다. 이에 앞서 이강인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국왕컵 에브로와 32강전에서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인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1군 경기에 데뷔했

고, 지난달 13일 바이올리드전에서 교체 출전해 프리메라리가(1부리그)에도 데뷔했다. 이강인은 “올해 1군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경험도 쌓아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겠다”라며 “요즘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힘도 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지금부터 더 좋은 경험을 쌓고 많이 배워서 발렌시아와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